



- ✓ 베트남 해외시장뉴스·월간 뉴스·프로젝트 동향 2
- ✓ <팀코리아협의회 동정> 산업부-코트라, 베트남 최대 종합전시회 참가 11
- ✓ <기업탐방> CJ푸드 베트남 12
- ✓ <법률> 베트남 투자방식 안내 전현우 변호사 14
- ✓ <회계> 베트남 세법 및 세무행정 2탄 엄진용 회계사 16
- ✓ <중재> 인테리어 공사 분쟁과 해결1 대한상사중재원 18
- ✓ <통관> 규제물질 포함 제품 수출입 통관 시 유의 사항 박민설 관세사 19
- ✓ 금월의 유망 성 투자 정보 <빈즈영성> 20
- ✓ <이달의 보고서> 베트남 진출기업을 위한 AEO 제도 활용가이드 27
- ✓ 베트남 및 아세안지역 주요 경제 지표 28
- ✓ 사업안내 및 공지사항 33





베트남 영화시장 최신 트렌드 툐아보기

- **한류의 일상화를 체험할 수 있는 베트남 영화관**
- **현지 정서를 고려한 영화시장 관련 진출 기회 모색 필요**

베트남 사람도 영화는 CGV와 롯데시네마에서

베트남에서 가장 큰 두 개의 영화관 체인은 모두 한국 기업이다. CJ CGV는 베트남 전역에 80개의 영화관을 보유하고 있다. CJ CGV는 2011년 7360만 달러를 들여 당시 베트남 최대 멀티플렉스인 메가스타(MegaStar)의 지분 대부분을 인수하며 베트남 시장에 진출했고 2년 후 CJ CGV는 메가스타 브랜드를 CGV로 전환했다. 한편, 롯데시네마 베트남은 2008년에 설립됐다. 롯데시네마의 티켓 가격은 약 10만~13만 동(4.2~5.4달러)으로 CGV 영화관과 비슷하다. CJ와 롯데는 단순히 영화관 사업뿐만 아니라 베트남 영화 투자 및 제작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베트남 영화관에서도 불고 있는 한류 열풍

한국 영화관 업체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한 덕분에 베트남 사람들에게 있어 한국 영화는 매우 친숙하다. 이 중 코미디 영화 ‘육사오(6/45)’는 베트남에서 역대 최고 매출을 올린 한국 영화로 약 760만 달러를 기록했다. 영화 흥행 비결을 이해하기 쉬운 유머와 젊은 세대들이 사용하는 유행어를 활용한 자막 번역에서 찾는 분석이 많아 현지화 성공 사례로서도 주목해 볼 만하다. 이외에도 현재 상영 중인 영화 ‘파묘’가 약 56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며 ‘육사오’의 1위 기록을 넘보고 있으며, 영화 ‘반도’와 ‘기생충’ 등도 베트남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바 있다. 즉, 한국에서 호평을 받은 대부분의 대작은 베트남 영화 관람객의 취향도 저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사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베트남 사람들이 영화관을 다시 찾고 있으며, 베트남 영화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한국 기업들도 이러한 베트남 영화 시장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CJ CGV와 롯데시네마 같은 대형 영화관 체인의 성공 사례는 한국 기업의 베트남 영화 시장 진출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진출 가능한 분야는 상영관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극장 내 각종 편의 시설 및 장비·간식류 분야, 영화의 소재가 될 수 있는 웹툰·웹소설 등 콘텐츠, 영화 촬영과 관련이 있는 각종 최첨단 장비 등 다양할 것이다. 다만, 위에서 여러 사례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지 문화와 취향에 부합하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현지 정서 및 특성을 고려해 현지화하려는 전략 등이 중요하다. 특히, 영화법과 같은 현지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다룰 때는 베트남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현지 영화산업 관련 다양한 플레이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현지 영화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2023년 베트남 10대 주요 경제·정치적 사건

- 2023년 베트남, 배-중 '미래 공유 공동체' 및 미국-일본과 최고 단계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
- 5.05%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베트남 경제

1. 대외 관계에서의 중요한 이정표

베트남은 중국, 러시아, 인도, 한국, 미국, 일본 6개국과 양국 관계를 최고 단계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2023년에는 여러 국가 지도자의 베트남 방문을 비롯한 외교 활동이 많았다. 대외 관계를 강화 및 구축하는 중요한 행사가 많이 개최됐다. 이러한 행사는 베트남 외교의 중요한 이정표로 여겨지며, 베트남의 자립적이고 협력적인 '대나무 외교(Bamboo Diplomacy)' 원칙이 빛을 발했던 한 해였다고 볼 수 있다.

2. 베트남 공산당 제13기 중앙위원회 중간 회의

10월 2일부터 8일까지 응우옌 푸 쯡 서기장(서열 1위)의 주재하에 개최했다. 전원회의는 2023년 사회경제 상황에 대한 논의에 이어, 2023년 및 2024년 국가 사회경제와 관련된 주요 사안에 대해 의결했다.

- 2023년 사회경제 상황과 국가 예산 및 2024년 계획
- 2024~2026년 국가 재정-예산 계획 및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급여 제도에 대한 로드맵
- 제11기 중앙위원회가 5차 전원회의에서 2012~2020년 기간 사회 정책 문제에 대해 발표한 10년간의 결의안 이행 내용 점검
- 제9기 중앙위원회가 7차 전원회의에서 발표한 민족 단결 증진에 관한 20년간의 결의안 이행 내용 점검
- 제10기 중앙위원회가 7차 전원회의에서 발표한 산업화 및 현대화 추진 기간 지식인 양성에 관한 15년간의 결의안 이행 내용 점검
- 제11기 중앙위원회가 8차 전원회의에서 발표한 국토 안보 전략에 관한 10년간의 결의안 이행 내용 점검
- 제14기 중앙위원회 인사 계획

3. 5.05%의 경제 성장률 기록한 베트남 경제

동남아시아 주요 6개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성장률이며, 전 세계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치에 속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베트남은 상반기인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3.41%와 4.25%로 다소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하반기인 3분기와 4분기에 5.47%와 6.72%를 달성하면서 하향 조정된 목표를 이룰 수 있었다.

4. 코로나19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FDI 실적

베트남은 2023년에 전년 대비 32.1% 증가한 약 366억 1,000만 달러의 등록 자본을 유치하여 팬데믹 이후 최고 기록을 세웠다. 베트남은 한 해 동안 3,188건의 신규 FDI 프로젝트 투자 허가를 받았으며, 총투자액은 201억 9,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건수로는 56.6%, 자본금으로는 62.2% 증가했다. 한편 베트남은 1,262개의 기존 FDI 프로젝트에 78억 8천만 달러의 증액 투자를 유치했으며, 거래 건수는 3.2% 감소했지만 자본 출자 및 주식 매입 거래를 통한 투자는 전년 대비 65.7% 증가한 85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다.

5. 베트남산 쌀 및 과일·채소 수출, 역대 최고치 기록

2023년 베트남의 쌀과 과일 및 채소 수출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베트남은 전년 대비 16.2% 증가한 840만 톤의 쌀을 수출했으며, 수출액은 36.3% 증가한 48억 달러를 기록했다. 쌀 수출의 물량과 금액 모두 증가세를 보인 것은 세계 쌀 시장의 수요 급증 및 지난 7월 인도가 자국 내 물가 및 공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비(非)바스마티 백미(non-basmati white rice)' 수출을 금지하여 베트남 쌀이 반사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과일 및 채소 수출액은 56억 달러로 2022년 대비 67.7%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중국과 체결한 MOU 덕분에 대량의 과일과 채소를 중국 시장에 수출할 수 있게 되어 매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6. 475km의 고속도로 완공

2023년 베트남에서는 총길이 475km에 달하는 9개의 고속도로가 완공됐는데, 이는 단일 연도에 건설된 고속도로 중 가장 긴 길이이며 2020년까지 지어진 1,160km의 고속도로 중 절반에 가까운 규모이다. 이로써 베트남 전국 고속도로의 총길이는 1,900km에 육박하게 되었다. 베트남은 사회경제 개발 전략에 따라 2025년까지 3,000km, 2030년까지 5,000km의 고속도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7. 베트남 내 반부패 투쟁 가속화

반부패 투쟁이 한 해 동안 활발히 진행되어 베트남 내 국가 및 비국가 영역에서 심각한 경제 관련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실제로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 장관, 차관, 장군, 지방 공산당 위원회 서기, 민간 기업 CEO 등 많은 고위 공직자를 포함한 수백 명이 기소 및 구금되어 조사받거나 법정에서 서게 됐으며, 거액의 돈과 자산이 환수됐다.

8. 강력한 회복세를 보이는 관광업

베트남은 2023년에 1,26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했으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자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실적이다. 한편 2023년 베트남 국내 관광객은 총 1억 8백만 명으로 추산되어 관광 부문에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9. 베트남 최초 국가 마스터플랜 본격 추진

'2021~2030년까지의 국가 마스터플랜, 2050년까지의 비전'이 발표됐다. 베트남 최초의 국가 마스터플랜에 의하면 베트남은 2030년까지 과학기술, 혁신, 디지털 전환을 기반으로 현대 산업, 높은 평균 소득, 경제성장을 이루는 개발도상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베트남은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 제로(Net zero)를 달성하고 2031년부터 2050년까지 연평균 6.5%에서 7.5%의 경제성장을 실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10. 2023년, 반도체 산업의 중요한 해

2023년은 베트남 정부 지도자와 글로벌 반도체 기업 대표 간의 많은 만남과 투자유치 활동이 있어 베트남 반도체 산업의 중요한 해로 평가받고 있다. 베트남 정보통신부(MIC)는 국무총리로부터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는 임무를 부여 받았으며, 지난 8월 총리는 4개 정부 기관이 협력하여 3만~5만 명의 엔지니어와 100명의 디지털 전환 및 반도체 제조 전문가를 양성할 것을 지시했다.



베트남 모바일 게임 시장 진출 전략은?

- 1억 인구, 저임금 IT 개발자 등 모바일 게임 시장 성장 주도할 인적 자원 풍부
- 진출 시 현지 파트너사와의 협업 필수적

현황

2022년 베트남의 앱 다운로드 수는 35억 건이며, 이는 동남아시아에서 두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베트남 정보통신부(MIC) 보고서에 의하면 베트남에서는 모바일 게임 애플리케이션이 앱 다운로드 및 앱 관련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인들은 게임 내 추가 콘텐츠와 아이템 구매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에서 2022년 모바일 앱 관련 소비자 총지출은 5억590만 달러로 2018년 대비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 MIC 통계에 의하면 베트남의 모바일 기기 사용자들은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앱 내부 유료 콘텐츠 구매에 총 1억 달러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소비 성향 덕분에 베트남 모바일 게임 시장은 해외 게임 개발자와 게임 배급사에 수익성 높은 매력적인 시장으로 각광받고 있다.

관련 규제 및 라이선스 분류 · 신청 절차 소개

‘인터넷 서비스 및 온라인 정보의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시행령 제72/2013/ND-CP호는 게임 라이선스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온라인게임 서비스의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시행규칙 제24/2014/TT-BTTTT호는 게임물의 연령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 보안법 제24/2018/QH14호의 제26조에 따르면 베트남 정보통신부 관할 기관 또는 공안부(MPS)의 요청이 있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콘텐츠를 삭제해야 한다. 또한 사이버 보안법 제8조에 따라 공산주의 및 베트남 정부를 모독하는 내용, 대중에게 혼란을 주는 내용, 외설스러운 내용, 범죄를 조장하는 내용, 사이버 스파이 활동 내용, 해킹 관련 내용, 국가 안보 질서 및 주권을 위반하는 내용 등은 금지 및 검열된다.

시사점 및 진출전략

2023년 베트남의 페이스북 사용자 수가 6593만 명에 달하고 글로벌 배급사를 포함한 베트남 모바일 게임 광고의 64.8%가 페이스북에 게재됐다. 이 점을 고려했을 때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게임 배급사는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페이스북 등 베트남에서 인기 있는 SNS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베트남 게임 업체의 관계자는 전문가 인터뷰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배급하기 위해서는 G1, G2, G3 또는 G4 라이선스를 보유한 베트남 파트너사와 경영협력계약(BCC) 또는 합작 투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합작 투자의 경우 외국 자본 출자 비율은 합작회사 법정 자본금의 49%를 초과할 수 없다”고 전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한국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베트남 주요 게임업체와의 경영협력계약 또는 합작 투자를 통해 베트남 모바일 게임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베트남 소스 · 조미료류 시장동향

-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로 연평균 7.3% 성장률 전망
- 제품은 생선 소스, 유통은 오프라인 채널의 소규모 식료품점이 베트남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
- 소비자들의 식습관 변화와 트렌드 확산에 따른 소스류 제품의 다양화

시장동향

1억 명의 인구를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의 소스·조미료 시장에서 가장 인기있는 품목은 ‘생선 소스(Nuoc mam)’이다. 튀김, 국수, 샐러드, 생선 및 고기 요리 등 전통적인 베트남 음식 조리법의 대부분에 활용되고 있는 ‘생선 소스’는 베트남 소스·조미료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의 소스 시장은 생선 소스, 칠리 소스의 전통적인 유형에 그치지 않고, 각종 과일과 채소 등 천연 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가공해 소스류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망고 소스, 녹색 칠리소스, 버섯 등 채소를 활용한 간장 소스, 견과류 소스 등이 출시되며 다양한 소비자들의 취향과 기호를 충족시키고 있다. 또한, 최근 건강한 식습관 및 채식 트렌드의 확산으로 인해 저당 케첩, 저칼로리 칠리소스, 저염 간장, 식물성 재료로 만든 채식 생선 소스(Nuoc Mam Chay) 등의 제품이 개발되어 함께 출시되고 있다.

경쟁동향/유통구조

베트남의 소스·조미료 시장은 다양한 규모의 제조업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마산그룹은 베트남 소스 및 조미료 시장에서 29.8%의 가장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의 아지노모토, 영국의 유니버그룹이 각각 15.7, 9.3%의 점유율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현대적인 시설의 대형 마켓과 편의점 채널의 급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식료품점이 86.4%로 오프라인 유통 채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소규모 식료품점 다음으로는 슈퍼마켓이 9.5%로 그 뒤를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의 대표적인 슈퍼마켓으로는 Co.op mart, Big C, Winmart, AEON Citimart, Emart, Lotte mart 등이 있다.

시사점

베트남 소비자의 평균소득 증가, 식습관 변화에 따른 새로운 맛과 트렌드에 대한 높은 관심도,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 등의 여러가지 요인은 소스·조미료류 시장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이에, 베트남 소스·조미료류 시장은 연평균 7.3%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베트남 소스시장의 경우 이미 다양한 국내외 경쟁 업체들이 존재하며, 정부의 식품안전 및 품질관리에 대한 규제와 절차가 복잡한 편이다. 또한, 전통적인 소규모의 오프라인 식료품점이 해당 산업 유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베트남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적합한 현지 유통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시장 진입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별로 다양한 음식 취향과 최신 산업 트렌드를 면밀히 파악해야 하며, 차별화된 고품질 제품을 통한 적극적인 마케팅과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여 소비자의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



국경을 넘는 온라인 리테일 붐,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동향

- 2023년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25% 증가
- 코로나 19전후 온라인 쇼핑시장의 빠른 성장세, 글로벌 기업 진출 지속 확대

베트남의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베트남 내에서의 전자상거래는 쇼피(Shopee), 라자다(Lazada), 틱톡숍(Tiktok shop), 티키(Tiki), 4개 플랫폼이 주도 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센도(Sendo), 모바일월드(Mobile World) 등과 같은 신규 전자상거래 사이트가 함께 경쟁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에서 주로 사용되는 전자결제 수단으로는 쇼피페이(Shopeepay), 비엔페이(Vnpay), 모모(Momo), 잘로페이(Zalopay) 등이 있다. 2023년 상반기 기준 베트남 전자상거래 1위 사업자인 쇼피의 점유율은 63%로 압도적이다. 틱톡숍이 20%, 라자다가 16%, 이며 티키는 1%에 머물고 있다. 상위 3개 전자상거래는 동남아를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브랜드이다. 쇼피와 라자다, 틱톡숍 모두 싱가포르에 글로벌 본부를 두고 있다.

어떤 제품이 많이 팔리고 있을까?

주요 플랫폼 사이트별 활발히 거래되는 품목들을 살펴보면, 의류, 신발, 화장품, 가전 및 전자제품, 책 등의 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개별 제품별 소비가 빠르게 이루어지거나 오프라인 매장과 비교하여 보관과 운송 측면에서 이점을 얻을 수 있는 물품들이다. 이외에 온라인 영화구독이나 식품의 매출 비중도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다. 상위 4개 플랫폼 매출액에서 각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역시 뷰티·가전제품·의류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1위 사업자인 쇼피의 경우 뷰티·가전제품·여성의류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라자다 또한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틱톡의 경우 전체 매출에서 여성의류와 남성의류의 비중이 다른 플랫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편이다. 이는 쇼트 중심의 영상물을 기반으로 하는 틱톡의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오프라인 매장과 달리,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하면 우리 수출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보다 수월해진다. 특히 근래 운송 인프라가 확충되고 한류를 통한 한국 제품에 대한 베트남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아질수록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우리 기업 제품의 베트남 진출은 보다 확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근 1~2년간 동남아 전자상거래 시장 트렌드를 살펴보면 글로벌 기업이 주요국에서 로컬 기업을 제치고 점유율을 확장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막대한 자본력과 다양한 글로벌 제품 라인을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현지시장에 침투하고 있으며 소비자 선호에 맞는 상품을 소싱하려는 경쟁 또한 치열하다. 쇼피는 한국 법인을 설립해 한국 내 주요 제품을 직접 소싱하고 있으며 라자다, 틱톡 또한 한국 내 파트너를 확대하고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별도의 유통망 개척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이들 플랫폼 입점을 통한 동남아 시장 진출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미국 상무부(DOC), 주요 새우 공급국에 반덤핑 관세 부과 예정

미국 시장에 저렴한 새우를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인도는 4.36%의 상계관세율이 적용되며, 에콰도르는 7.55%, 베트남은 최저인 2.84%의 관세율이 적용됨. 이러한 관세율은 공식 발표 후 적용될 예정이며, 수입업체들은 최대 4개월 동안 해당 관세율에 해당하는 현금 보증금을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에 예치해야 함. 최종 결정은 2024년 말에 예상되며, 이는 수입업체들이 대부분의 해 동안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함. 인도네시아의 보조금 비율은 반덤핑 관세를 요구 받게 되는 금액 이하로 판명되어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됨. 지난해 이 네 국가는 미국의 총 새우 수입량의 90%, 즉 56억 달러 가치를 차지함.

[WTO Center 3.29]

▶ 베트남 F&B 산업, 새로운 트렌드로 성장 지속...작년 대비 10.92% 성장할 것으로 전망

베트남 식음료(F&B) 시장은 2024년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2023년 대비 가치가 10.92% 증가하여 655조 VND(261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됨.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기업의 약 80%가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으며, 절반 이상이 확장을 계획중임. iPhos.vn의 베트남 F&B 시장 연구에 따르면 외식에 대한 소비자 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외식 서비스 부문은 F&B 산업 매출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함. Z세대는 모험적인 미각과 소비 의지를 특징으로 하는 주요 고객군으로 부상하며, F&B 브랜드는 충성도를 확보하기 위해 편의성과 혁신에 중점을 맞추고 있음. 또한, 고급 레스토랑 간의 미슐랭 스타 경쟁이 심화되어 음식 품질과 고객 경험이 개선되고 있으며, 국제 요리 무대에서 베트남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음.

[Hanoitimes 3.30]

▶ 베트남, '23년 사이버공격 위협 건수 동남아 국가 중 최다

베트남 기업 대상 사이버공격은 총 1,710만 건에 달함. 글로벌 보안업체 카스퍼스키(Kaspersky)는 동남아 국가별 사이버공격 위협 건수는 베트남(1위), 인도네시아(2위), 태국(3위), 말레이시아(4위), 필리핀(5위), 싱가포르(6위) 순이라고 발표함.

[Vietnam Investment Review 4.8]

▶ ADB, 베트남 경제성장률 6.0~6.2% 전망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아시아개발전망(ADO)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및 2025년 베트남 경제성장률 각각 6.0%와 6.2%로 전망됨. 제조업·서비스업의 수출 주도 및 농업 부문의 안정적인 성과가 베트남 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됨. FDI 호실적, 지속적인 무역 흑자, 베트남 국내 소비 회복, 대규모 공공 투자 프로그램을 통한 재정 부양책 등을 '24년 베트남 성장을 견인할 핵심 요소로 꼽음.

[Vietnam news 4.11]

▶ 베트남 농림 수산업 수출액 550억불 달성 예상

농업 및 농촌 개발부 차관인 풍 둑 티엔(Phung Duc Tien)은 베트남의 농업 및 어업 부문에서 올해 총리의 수출 목표인 540억~550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함. 목재, 채소 및 과일, 쌀, 커피 등 과 같은 주요 상품의 수출이 급증하면서 2024년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1.8%의 큰 폭의 성장을 달성했음. 쌀 수출은 엘니뇨 현상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동남아시아, 중국, 아프리카 및 국내 시장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800만 톤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채소 및 과일 수출도 2023년의 기록을 넘어선 65억~70억 달러에 이를 것임. 신선한 코코넛과 냉동 두리안의 중국 시장 진출과 확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과일 및 채소 수출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 특히 수산 분야에서 베트남 기업들은 박람회와 전람회 등에서 적극적으로 기회를 찾고 더 빨리 회복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Vnexpress 4.4]

▶ 베트남중앙은행(SBV), 환율 안정을 위한 외환시장 직접 개입 추진

외환시장 안정을 목표로 1달러당 25,450동의 환율로 달러 매도를 시작함. 연초 이후 달러 대비 5% 이상 베트남 동(VND) 가치 하락, 이를 안정화하기 위한 약 1,000억 달러의 외환보유고 기반 강력 조치임. 미국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 지연 및 베트남 국내 철강 수입업체의 등의 외화 수요 증가가 환율 급등의 주된 원인인 것으로 추정됨.

[Vietnam News 4.20]

▶ 베트남, 전력 '피크기간' 안정적 전력 공급에 전방위적 노력

베트남 팜 민 찰(Pham Minh Chinh) 총리는 관련 부처 및 기관 대상 안정적 전력 공급에 총력을 다할 것을 요청함. 5~7월, 전력 소비가 당초 예상치인 9.6%를 넘어 13%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북부 지방은 17%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EVN 4.15]

▶ 애플 CEO 팀 쿡, 4월 15일~16일 양일간 베트남 방문

애플은 제조 거점 다각화 통해 중국 공급망 의존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중임. 2019년부터 현재까지 베트남 경제에 약 4,000억 동(약 159억 달러) 투입했으며 직접 고용, 공급망, IoT 생태계를 통해 20만 개 이상의 현지 일자리 창출중임. 애플 CEO 팀 쿡(Tim Cook)은 인재 양성 프로그램·빛물 저장 시설 통한 베트남 학교 교육 환경 개선 등 사회 공헌 약속함.

[Tuoitre 4.16]

1. 발굴 프로젝트 리스트

- Upgrade and renovation of 62 National Highway
 - * 발주처 담당자 정보 및 기타 세부사항 별도 문의(je.kim@kotra.or.kr)

2. 프로젝트 세부정보

발주처	기관명 : Upgrade and renovation of 62 National Highway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위치 : Long An province and Ho Chi Minh City ▪ 규모 : 약 110백만 달러 ▪ 프로젝트 재원 : World Bank (70%), Governmental Fund (30%) ▪ 프로젝트 단계 : The Project Proposal is approved. Pre F/S has been submitted to the Prime Minister. ▪ 프로젝트 관련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4분기~2025.1분기 : 입찰마감 - 입찰방식 : World Bank's Procurement Regulations for IPF Borrowers ▪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rting point at Km4 + 200 (Ho Chi Minh - Trung Luong highway intersection) to the ending point at Km74 - Total length of project: 69km - Scale: 2 motor vehicle lanes (2x3.5m) an 2 rudimentary vehicle lanes (2x2.0m) - Width of road: 11m - Width of walk side: 2x0.5m - Vtk=80km/h



산업부-코트라, 베트남 최대 종합전시회 참가

대우건설·한국남부발전·한국가스공사 등으로 구성된 한국 컨소시엄이 총사업비 3조2000억원에 달하는 산업 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KOTRA(사장 유정열)는 오늘(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개최되는 베트남 최대 종합 전시회인 ‘2024 베트남 엑스포’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제품을 전시하는 한국관을 운영한다.

KOTRA는 1999년부터 25회째 한국관을 구성해서 참가하고 있다. (재)인천테크노파크(원장 이주호)와 함께 운영하는 이번 한국관에는 화장품, 식품음료, 소재장비, 패션잡화 등을 취급하는 국내 기업 58개사가 참여한다. 특히 현지에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화장품, 식품 등 소비재 기업이 한국관의 80% 이상을 차지해 한류 프리미엄을 공략하려는 우리 기업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KOTRA는 6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국내 기업의 베트남 수출을 전주기에 걸쳐 지원한다. 베트남 최대 유통망인 윈커머스(Wincommerce)를 비롯해 주요 바이어 190여 개사와 460여 건의 사전 일대일 B2B 상담을 주선했다. 또 전시회 개최 기간 이후에는 후속 온라인 상담을 주선했으며 사후 지원에도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참가기업 중 청결제와 향수를 제조하는 R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참가해 베트남 바이어와 거래 물량 확대를 위한 최종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S사는 팬데믹 이후 건강에 관심이 높아진 현지 트렌드를 반영해 건강기능식품인 솔잎증류농축액으로 2019년부터 베트남에 진출했다. 이번 전시회 참가로 베트남 바이어와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하는 최종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이외에도 내수, 수출초보기업 제품을 취급하는 전문무역상사 10개사가 참가하는 ‘전문무역상사 특별관’(Certified Trading Company)을 별도로 마련했다. 4일에는 전시장 인근 하노이 멜리아 호텔에서 국내 기업 30개사와 주요 바이어 80여 개사를 초청해 수출상담회도 개최한다.

이희상 KOTRA 동남아대양주지역본부장은 “베트남 엑스포는 베트남 최대 규모의 무역 진흥 전시회로 현지에 우리 기업의 제품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중요한 행사이다”며, “올해도 우리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사전부터 사후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해 수출 성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베트남 팀코리아협의체 활동 내역은 앞으로도 지면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으로 전파가 필요하신 기관은 코트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K-FOOD의 중심, CJ푸드 베트남

김희유 공장장

CJ식품법인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CJ푸드 베트남은 2013년 9월 일본 스미토모사와 각각 지분 51%,49%을 보유한 합작법인인 CJSC 푸드밀링으로 출범했었으나 2018년 Minh Dat, Ong Kim, CJSC 푸드밀링을 전부 인수하며 현재의 CJ푸드 베트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CJ푸드 베트남은 식품사업과 소재F사업 2가지로 구분됩니다. 오늘 인터뷰에서는 CJ푸드 베트남의 2개의 사업부문 중 소재F사업 부문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재F사업 부문의 주요 생산품은 바리아붕파우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해당 공장은 2015년 6월 가동을 시작하여 현재 182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은 밀가루(강력분, 중력분, 박력분, 라면용, 사료용 등), 프리믹스



(베이커리용, 제과용,해산물용, 육가공용, 기타), 당믹스(등_입니다. 생산시설을 제품별로 나눠서 가동중에 있으며, 생산동에따라 별도의 저장시설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생산품의 주요 원료인 밀은 연간 가공량의 80% 이상을 호주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미국산 밀은 약 20% 정도입니다. 생산라인별로는 밀가루 생산라인 2개, 프리믹스 생산라인 2개, 당믹스(수용성 분유믹스, 수용성 신규 당믹스, 코코아당믹스, 기타파우더) 생산라인 3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밀가루와 프리믹스의 경우 내수 유통 및 수출용이나 당믹스의 경우 100% 수출용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품별 연간 생산량은 밀가루 24만톤, 프리믹스 8천톤, 당믹스 4만톤 정도입니다. 생산공장이 풀 가동되는 걸 전제로한 최대 연 매출액 2,500이며, 작년 연매출은 약 1,500억 정도였습니다.

베트남 사업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CJ푸드 베트남은 2013년 9월 일본 스미토모사와 각각 지분 51%,49%을 보유한 합작법인인 CJSC 푸드밀링으로 출범했었으나 2018년 저 역시 본격적인 베트남 시장 진출이전에는 베트남 사업환경에 대해서 막연히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난관들을 겪어왔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012년부터 베트남 사업검토, 공정설계 등을 준비했고 2014년 처음 파견되어 지금까지 중간에 한국에 잠시 복귀한 시간을 제외하고 약 10년 동안 베트남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사업환경은 베트남 정부의 기조에 따라 항상 변하는 것 같습니다. 소방법, 환경영향평가, 세무검사 등 여러 현지 법률에 따른 평가나 조사 시 관련된 내용에 대한 준비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 외 어려운 점은 인력관리인 것 같습니다. 베트남은 이직률이 매우 높습니다. 숙련된 인력들의 높은 이직률로 인해 한국본사에서 숙련된 인력이 파견을 나와야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 인력관련 비용부담이 높은 편입니다. 추가적으로 로컬업체와 경쟁시 가격 경쟁력 확보가 필수지만 저희는 한국 품질에 기준점에 두고 생산하기에 로컬업체와 가격 경



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엔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식품 안전, 위생에 대한 민감도가 한국과 차이가 있어 원료의 품질이나 각종 인증 등에 대한 절차에 대한 실행도가 낮은 편인 로컬업체의 생산비용과 단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소득수준이나 경제 규모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 구매력이 커지는 부문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하고 계신 신사업이 있으신가요?

CJ푸드 베트남 식품사업 부문의 경우 다양한 신제품을 지속 출시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김 이외에도 호떡, 핫도그, 떡볶이 등 길거리음식과 특히 본사 기조에 맞춰 -FOOD라는 트렌드에 맞게 한국의 식문화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제품들이 비비고 브랜드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특히 식품사업, F사업부문의 모두 생산/판매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북부에도 생산기지를 설립 하는것이 목표입니다. 현재는 남부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북부로 운송하여 유통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물류비용 등 여러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북부에도 생산기지를 마련하여 북부/남부 수요를 각각의 생산거점에서 대응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진출을 준비중인 한국기업에게 조언해주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기회를 바탕으로 도전하면 안되는 건 없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만 믿고 진출한다면 여러 험난한 과정을 거치시게 될 것입니다. 특히 베트남에서는 "관계"가 매우 중요하기때문에 인력채용부터 신중 하셔야 하고 브로커들이 많기때문에 모든 과정에서 신중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한동안 베트남에 한국 치킨집이 많이 생겼었는데요 치킨집이나 제과점 등 저희 제품이 사용되는 경우 소량이라도 최대한 도움 드렸었습니다. 식품이나 레스토랑 사업을 계획 중이신 기업 중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본부를 통해 연락하시면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투자 방식 안내

법무법인JP 베트남사무소 전현우 대표변호사

서설

현재 베트남에는 여러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진행하여 제조, 부동산, 골프, 레저, 유통업, 요식업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고 이와 같이 외국인 투자자는 베트남에 여러 방식으로 진출이 가능하나 그 진출이 가능한 방식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표사무소, 법인설립 등이 있으며, 본 칼럼에서는 이러한 진출 방법에 따른 각 특징, 기업법상 법인 형태별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투자 방식 검토

외국인 투자자는 베트남에 진출하는 방법으로 대표사무소, 법인설립, 프로젝트오피스, 지점설립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중 프로젝트오피스는 종료가 예정된 건설프로젝트의 경우에 설립이 되며, 지점의 경우 별도 법인격이 없는 외국투자자 본점에 종속되는 형태로 은행 등과 같이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설립이 허용됩니다. 즉, 일반 외국인 투자자가 고려할 수 있는 투자방안은 대표사무소와 법인설립 두가지 방안으로 제한됩니다. 대표사무소와 법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대표사무소는 현지 시장조사, 마케팅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별도 법인이 아니므로 자본금 납입이 불요하고 본사 송금을 통한 비용지출만이 가능합니다. 즉, 베트남에 별도의 독립된 사업계획이 없고 직원의 현지 파견이 필요한 경우, 인허가가 매우 어려운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 직원의 현지 파견이 필요한 경우 등 베트남 현지에 직원 파견이 목적인 경우 대표사무소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사무소 설립 절차

대표사무소는 현지 시장조사, 마케팅 등의 목적으로만 활동이 가능하므로 대부분의 경우 설립절차가 어렵거나 까다롭지 않습니다. 다만, 각 업종별로 주무부서 인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기업의 경우 계획투자국이 주무부서가 되어 큰 어려움 없이 설립이 됩니다. 다만, 금융기관, 운송업 등 특수한 업종의 경우 중앙은행, 재무부, 교통부 등과 같이 주무부서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주무부서 검토가 필요하여 매우 까다로운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대표사무소는 주무부서 승인 외에 세무코드를 발급받는 세무등록증 발급절차가 필요하며, 대표사무소 인감 발급이 필요합니다. 대표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 가장 큰 이슈는 세무관련 이슈입니다. 대표사무소는 본사에서 전도금을 송금받아 사용하게 되므로 별도 수익이 없어 법인세가 발생하지도 않고, 부가세 환급이 없어 부가세 이슈도 없는데 세무 이슈가 무엇이냐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대표사무소에서 사용되는 금액들은 적절한 비용 증빙이 없는 경

우 대표사무소장의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금영수증을 성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인설립 절차 및 법인 형태별 차이

가. 법인 설립 절차

일반적인 법인설립절차는 (1) 투자등록증 발급 (2) 사업자등록증 발급 (3) 인감 발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법인설립 절차도 그 업종 및 사업목적에 따라 소관부서의 인허가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고, 프로젝트 규모가 커지는 경우 투자등록증 발급에 앞서 관할 기관 - 국회, 총리, 시성급 인민위원회 등의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반적인 투자등록증 발급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 절차로 설립이 진행되며, 설립 후 영위하는 사업목적에 따라 추가 인허가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 또한 살펴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업의 경우 임대업 라이선스가 별도로 필요하고, 유통업 매장을 오픈하시는 경우 각 상점마다 별도의 리테일 매장 허가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투자자가 진행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 제조업과 같은 경우 크게 이슈가 있지는 아니합니다만, 자연, 환경, 소방, 안전 등에 영향을 크게 미칠 우려가 있는 화학, 염색 관련 업종, 폭발 위험성이 있는 업종 등의 경우 입지선정부터 인허가 과정에 철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나. 법인 형태별 차이

베트남에 투자하시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한국 본사 단독 투자, 개인투자 등으로 진행되어 1인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설립이 됩니다. 유한책임회사라는 형태가 한국에서는 익숙하지 아니하여 주식회사 설립을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주식회사나 유한책임회사나 설립 난이도에 차이가 있거나 기간이 특별히 더 소요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베트남 기업법이 주식회사 설립에 투자자 3인을 요구하고 있어, 한국에서 해외투자신고를 진행하는 3인이 필요하고 투자자가 1인인 경우에는 예외 없이 1인유한책임회사만 선택할 수 있어 1인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설립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 3인 요건을 맞출 수 있다면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세법 및 세무행정 2탄

동아회계법인 엄진용 회계사

들어가는말

안녕하십니까? 동아회계법인 베트남 대표 엄진용 회계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지난달에 이어 베트남에서 이 행되는 세무조사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결코 반갑지 않은 손님인 세무조사

베트남에서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면서 마주치게 되는, 그러나 결코 반갑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세관조사 및 세무조사 등 과세당국으로부터의 각종 조사들일 것입니다. 베트남에서 좀 지내다보면, ‘남들은 몇 년동안 조사를 안나온다고 하던데 도대체 왜 우리 법인에는 이렇게 자주 나오는 것인지?’, ‘작년에 와서 세무조사를 다 했는데 올해 또 조사를 나온다고 하는건지?’ 또는 ‘한번 조사를 나왔는데

데 빨리 끝낼 생각도 안하고 계속 괴롭히기만 하는지?’, ‘부가세 환급조사까지 다 끝내고 환급을 받았는데 왜 세무조사시 부가세 환급을 잘못 받았다고 벌과금까지 납부하게 하면서 환수해가는지?’ 등등 많은 궁금증과 속상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위 몇 가지 문장들로서 많은 한국투자기업들이 갖고 계신 답답함을 전부 대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세무조사라는 것이 뭘 하자는 것인지, 왜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부터 이해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세무조사의 종류

우선 베트남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법인을 운영하면서 납부하는 세금 및 세금과 유사한 것들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①법인세 ②부가세 ③소득세 ④외국인계약자세 ⑤수입관세 ⑥주식/지분양도세 ⑦ 사회보험, 건강보험 및 실업보험 ⑧재해방지기금 ⑨노동조합 지원비 ⑩ 라이선싱비 ⑪자산등록세 등이 있고, 이외 특정활동에

세무조사의 분류		비고
구분	종류	
1. 조세범칙법의 유무에 따른 분류	일반세무조사	일반적인 세무조사 유형
	조세범칙조사	조세범칙처분(고발 또는 통고처분)
2. 조사대상자 선정방법에 따른 분류	정기조사	4-5년 순환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
	비정기조사	탈루혐의가 있을 때 수시로 실시
3. 조사 세목의 통합여부에 따른 분류	통합조사	여러 세목을 통합하여 하는 조사
	세목별조사	부가가치세 등 특정세목에 대한 조사
4. 조사대상 범위에 따른 분류	전부조사	조사대상 과세기간 전부분에 대한 조사
	부분조사	특정세목 또는 특정항목에 대한 조사

왼쪽 그림은 우리나라의 세무조사의 형태를 실무적인 관점에서 요약하여 분류한 표입니다. 비록 우리나라의 경우이지만 우리나라의 세법체계를 본따서 기본틀을 형성한 베트남의 경우도 대부분 유사하다고 이해하시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교과서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현행 세법에 맞게 신고 및 납부를 기한내 이행을 하였다면 그 어떠한 세무조사를 수검받더라도 걱정할 것이 없겠

지요. 하지만, 우리나라나 베트남 어느 곳에서라도 세법을 정확하게 몰라서 또는 실수로 부정확하게 세금이 계산되거나 신고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은 의도적인 행위도 빈번하구요. 상기 세무조사의 경우는

쉽게 이야기하자면, 현행 세법에 부합하는지 불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징수하는 경우입니다. 조금 더 쉽게 보자면, 소위 ‘옳고 그름’의 차원이라는 것이지요. 안타깝지만, 2017년 이후부터 보다 강화된 ‘이전가격 세무조사’의 형태도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에 있는 매출처 및 매입처를 두고 있는 기업들은 이러한 이전가격 세무조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이전가격 세무조사는 쉽게 이야기하자면 ‘옳고 그름’의 차원이 아니라 ‘특수관계자로서가 아닌 제3자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거래를 하였는지’여부에 관한 조사입니다.

아울러, 이전가격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의 대상기간과 겹칠 수 있습니다. 즉, 정기세무조사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끝냈다고 하더라도 추후 동일한 기간에 대해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또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두가지 세무조사의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기세무조사의 경우는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종 증빙자료 및 세액산출에서 오류가 없고, 신고/납부 기한을 잘 준수하였다면 문제될 것이 없으나, 이전가격 세무조사의 경우는 비록 제반 세법규정을 잘 준수하였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는 이유로 일종의 부당하고 인위적인 이익의 이전이 있지는 않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상기 서로 다른 목적의 세무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세무조사의 종류 및 형태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호에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테리어 공사 분쟁과 해결 1

대한상사중재원 유하영 소장

인테리어공사 역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분쟁 관련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18년 3. 22, A정형외과 인테리어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8.3.22.부터 2018.5.10.까지 계약금액 251,900,000원, 지체상금율 1,000분의 2 등의 조건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바닥 재질을 렉서리 비닐(L.V.T)에서 콘크리트 폴리싱으로 변경하는 것을 비롯하여 진료실, X-ray룸, 초음파실, 탈의실 등 병원 내 시설의 구조, 재질 변경을 요청합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시설의 구조, 재질 등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을 협의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신청인은 2018. 5. 중순경 공사를 완료하였고, 관할 소방서 등으로부터 소방점검 등을 받고 2018.6 중순경 공사내역 및 정산서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신청인에게 공급가액 282,000,000원, 세액 28,200,000원 합계 310,200,000원으로 작성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피신청인은 공사대금 251,900,000원 및 가전제품 구매대행비용 8,381,000을 지급하였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설계변경 요청에 따라 바닥 재질, 병원내 시설구조등의 변경에 관하여 설계변경 및 시공을 하였고, 공사를 마친 후 피신청인과 위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합니다.

피신청인은 2018.6. 중순경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고,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대금은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산정한 것이며, 병원 내 시설의 일부 구조변경이 있긴 했지만 공사대금 증액사유가 될 수 없다며, 신청인이 계약상 준공기한을 초과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30일 상당의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인테리어 분쟁의 사례입니다. 어떤 중재판정이 내려졌는지는 다음 호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설은 중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입니다. 또 인테리어는 건설의 한 분야로 인테리어 시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중재가 가능합니다. 인테리어 분쟁 시, 공사 품질 및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대한상사중재원에 의뢰하여 해결을 하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상설법정중재기관으로,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한 분쟁을 중재 외에도 조정 알선을 통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 풍토를 조성하고 나아가 국가산업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규제물질 포함 제품 수출입 통관 시 유의 사항

FTA활용지원센터 박민설 관세사

오존층 보존과 온실가스(Green house gas, GHG) 감축을 위한 자원환경법 시행령 (06/2022/ND-CP)이 2022년도 1월 7일에 발표되었다. 해당 시행령 상 명시된 HCFCs, HFCs와 같은 규제 물질에 대한 제한 사항을 실제 이행하기 위해 자원환경부는 세부 시행규칙 01/2022/TT-BTNMT를 발표하였으며, 해당 시행규칙에는 시행령 상 사용 등 제한 대상이 되는 물질들의 리스트가 포함되었다.

해당 시행령 및 시행 규칙 상에는 관련 규제 물질, 장비 등의 수입 시 관련 정보를 신고해야한다는 의무를 두고 있으나 실제로 이행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관세총국에서 수입 통관 시 관련 수출입자들의 의무 이행을 독려하는 공문을 발표함에 따라, 관련 업체들의 유의가 필요하다.

먼저 자원환경법 시행규칙 01/2022/TT-BTNMT 부록 3.1에서는 생산, 수입, 소비가 금지된 물질을 명시하고 있으며, HS 코드 기준 제 2903호 및 제 3927호에 해당하는 HCFC 가스 및 CFC 가스가 해당한다. 01/2022/TT-BTNMT 부록 3.2에는 오존층을 감소시키는 물질로써 규제가 필요한 물질들로 메틸브로마이드 등의 물질들이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물질 중 메틸브로마이드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따라 농업농촌발전부의 수출입 허가서가 있어야 통관이 가능하며, HCFC 가스에 대해서는 매년 일정한 수입 쿼터에 따른 수입 제한이 적용된다. 동일 시행규칙 부록 3.3에 해당하는 온실가스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2024년부터 수입쿼터제가 적용된다.

부록 3.4에는 규제물질을 포함하거나, 규제물질을 사용하여 만들어지는 상품, 설비, 제품이 명시되어 있다. 특히 에어컨, 냉장고, 공기조절기, 분사장비, 및 일부 화학물질이 포함된다. 그 중 해당 물질 일부가 수정, 보완된 19/2023/TT-BTNMT가 2023년 11월 15일에 발표되었으며, 이 중 부록 3.1과 3.4에 포함된 일부 물품의 명세가 일부 수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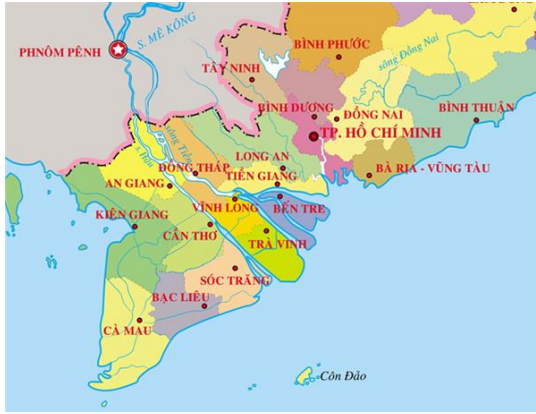
관세총국은 이러한 규제물질 및 규제 물질을 포함하는 상품, 장비, 제품들과 관련하여 해당 시행 규칙 01/2022/TT-BTNMT 상 명시된 통관 관련 정보 신고 의무 이행을 독려할 것을 각 시, 성급 세관에 알렸다. 따라서 이들 물질 및 상품, 장비 등을 수출입하는 당사자들은 수출입 통관 시 규제물질 사용 여부 등에 대해 명시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를 이행 해야하며, 추후 관련 업체의 통관 과정에서 유의가 필요하다.

베트남 남부 유망 투자지-빈즈엉성

기본정보

구분	내용	
면적-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적: 2,695km² 인구: 2,700,0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거주 비율: 84.23%
지정학적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빈즈엉성은 베트남 남부 소재 성이며, 남부 주요경제지역에 위치해 있음. 빈즈엉성에는 많은 산업단지가 집중되어 있으며 베트남 남부의 주요 물류 중심지임. 북쪽으로는 빈프억(Binh Phuoc)성, 남쪽으로는 호치민시(40km만), 동쪽으로는 동나이(Dong Nai)성, 서쪽으로는 떠이닌(Tay Ninh)성과 인접해 있음 	
접근성	<p>빈즈엉성은 성의 공단 및 산업 클러스터에서 항구, 공항 및 다른 남부 지방성으로 직접 연결하는 다양하고 종합적인 교통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도로: 13번 국도, 1K 국도, 제3 순환도로, 제4 순환도로, 미프억(My Phuoc) - 탄반(Tan Van) - 바우방(Bau Bang) 고속도로, DT 743, DT 741 및 DT 747 등의 성도로 주요 철도: 디안(Di An) - 송탄(Song Than), 확장된 디안(Di An) - 바우방(Bau Bang) 주요 수로: 동나이(Dong Nai)강 및 사이공(Sai Gon)강 	
GRDP 성장률 / 1인당 GDP('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대비 GDP 성장률: 5.97% 성 1인당 GDP: US 6,880 달러/년, 전년대비 8.01% 성장 	
경제규모 / 산업별 성장률('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수출액: US318억 달러 / 총 수입액: US231억 달러 	
산업구조('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업/건설업: 66.26%, 서비스업: 23.71%, 농수산업: 2.64% 	
노무여건('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내 노동가능연령 인구비율: 66.5% 노동가능연령 인구중 직업교육 이수자 비율: 83% 	
최저임금('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VND 4,680,000= US 185 달러(1급지) 	
외국인투자 ('24.3월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빈즈엉성 내 총 외국인투자는 4,266개 프로젝트에 406억 달러 규모 (한국) 775개 프로젝트에 걸쳐 총 33.4억 달러를 투자하여, 투자금액 기준으로 빈즈엉성에 투자한 국가(65개) 중 5위 규모임 	

투자환경



빈즈엉성 인근지도



빈즈엉성 내 현과 시

▶ 교통시스템

(도로)

- 2020년-2025년 기간에 빈즈엉성은 공단 및 도시권과 연결하는 성내 도로를 지속적으로 개통하고, 교통 인프라 시스템을 개선 및 완성할 계획임:
 - ✓ 빈즈엉성을 관통하는 제3 순환도로 및 제4 순환도로
 - ✓ 호치민시-투저우똌(Thu Dau Mot)시-전타잉(Chon Thanh) 고속도로
 - ✓ 빈즈엉성 투저우똌(Thu Dau Mot)시를 호치민시 투득(Thu Duc)시 및 동나이(Dong Nai)성 비엔화(Bien Hoa)시와 연결하는 DT 743 도로
 - ✓ 빈즈엉성, 빈프억(Binh Phuoc)성, 호치민시를 관통하는 13번 국도
 - ✓ 경관 조성 및 교통 체증 방지 프로젝트인 미프억(My Phuoc)-땀반(Tan Van)-바우방(Bau Bang) 고속도로

(수로)

- 동나이(Dong Nai) 강은 635km 길이로 베트남에서 가장 긴 내륙강이며 람동(Lam Dong), 닥농(Dak Nong), 빈프억(Binh Phuoc), 동나이(Dong Nai), 빈즈엉(Binh Duong) 및 호치민시를 관류함. 동나이강은 농업용수, 해상운송, 수산물 공급원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
- 사이공(Sai Gon) 강은 256km 길이이며, 경사도가 낮기에 교통, 농업 생산 및 양식업에 유리함

(항구)

- 빈즈엉성은 호치민시의 깃라이(Cat Lai) 항구에서 약 60km 떨어져 있음. 빈즈엉항구는 사이공(Sai Gon)강과 동나이(Dong Nai)강의 합류점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바리아-붕따우성(Ba Ria-Vung Tau)성의 까이몹(Cai Mep) 국제 항구들과 연결되어 있음. 수출입 기업의 교통 체증을 줄이고 운송 시간과 물류비용을 절약하는 데 기여함.

(항공)

- 남부에서 가장 큰 국제공항인 편손넛(Tan Son Nhat) 국제공항에서 빈즈엉성까지의 거리는 약 50-60km임

➤ 역사문화

역동적인 경제활동외에 빈즈엉성은 다양하고 풍부하게 발전하는 역사 및 문화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빈즈엉성은 12개의 국립 역사·문화 유적지 및 44개 일반유적지를 보유하고 있음. 전통 수공예마을 문화개발 과정에서 빈즈엉성은 300년 이상된 유명한 공예 마을의 수공예품으로 깊은 인상을 남겨오고 있음. 도자기 마을, 목공 마을, 옷칠 마을과 같은 전통적인 수공예 작업마을은 오래전부터 번성하였음. 또한 빈즈엉성에는 수많은 방문객을 맞이하는 명승지, 생태관광지역과 다양한 전통축제가 개최되고 있음:

- ✓ 바티엔하우(Ba Thien Hau) 탑 축제 - 투저우뭇(Thu Dau Mot)시
- ✓ 망고스틴과 두리안 특산품으로 유명한 라이티에우(Lai Thieu) 과수원-투안안(Thuan An)시
- ✓ 락까잉다이남반히엔(Lac Canh Dai Nam Van Hien) 관광구역
- ✓ 카우 산(Nui Cau)-저우띠엥(Dau Tieng) 호수 관광구역

이외에 빈즈엉성 특산 요리인 바잉베우미레엔(Banh Beo My Lien) 브랜드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10대 베트남 특산품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음.



Lai Thieu 과수원



Lac Canh Dai Nam Van Hien 관광구역

➤ 천연자원

습한 열대 기후와 비옥한 토양의 특성으로 인해 빈즈엉성의 산림은 매우 다양하며, 희귀한 목재, 약 원료, 식용 식물 및 희귀 동물 등을 보유하고 있음. 빈즈엉성은 지하에 풍부한 광물을 함유하고 자연의 혜택을 받은 땅이기도 함. 빈즈엉성은 고령토, 백토, 유색 점토, 백자갈, 청석, 라테라이트가 많은 곳에 산재되어 있으나 가장 집중된 지역은 판우엔(Tan Uyen)현, 투안안(Thuan An)현, 지안(Di An)현, 투저우뭇(Thu Dau Mot)시임.

▶ 인센티브 지원 정책

- 법인 소득세법 시행지침에 대한 제218/2013/ND-CP 의결서(2013.12.26)
- 투자법 시행지침에 대한 제31/2021/ND-CP(2021.03.26) (투자우대 분야/지역 목록 포함)
- 토지 임대료 및 수면 임대료에 대한 제46/2014/ND-CP 의결서(2014.05.15)

투자지역	법인세	토지 임대료 및 수면 임대료
경제구역, 하이테크 구역에서 신규 프로젝트 실행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 15년간 세율 10% • 최초 4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9년간 50% 감면(기업이 수익을 얻은 첫해부터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건설 기간 동안 면제(최대 3년간), 이후: • 특별 투자우대 분야: 전체 기간 면제 • 투자우대 분야: 15년간 계속 면제 • 투자우대 미등록분야: 11년간 계속 면제
다음 분야에서 신규 프로젝트 실행 시: 과학 연구 및 기술 개발, 첨단 기술법의 규정에 따른 우선 순위 목록에 있는 하이테크 응용 등 환경 보호 분야에서 신규 투자 프로젝트 실행 시		
산업단지, 수출 가공 구역에서 신규 프로젝트 실행 시 *사회경제적 조건이 유리한 지역 [투저우똌(Thu Dau Mot)시]에 위치한 공단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간 17%(2016년 1월 1일부터 유효) • 최초 2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4년간 5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건설 기간 동안 면제(최대 3년간), 이후: • 특별 투자우대 분야: 15년간 계속 면제 • 투자우대 분야: 11년간 계속 면제 • 투자우대 미등록분야: 7년간 계속 면제
다음 분야에서 신규 프로젝트 실행 시: 고급 철강 생산, 에너지 절약 제품 제조; 농업, 임업, 어업 및 소금 생산을 위한 기계 및 장비 제조; 가축, 가금류 및 수생 동물을 위한 사료 생산 및 정제; 전통산업 개발		
투자우대받지 않는 프로젝트 실행 시	기본 세율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건설 기간 동안 면제(최대 3년간), 이후: • 특별 투자우대 분야: 11년간 계속 면제 • 투자우대 분야: 3년간 계속 면제

- ❖ 수입세: 수출입세법 시행지침에 대한 제134/2016/ND-CP 의결서(2016.09.01)에 따르면 생산 및 비즈니스 활동 분야에 따라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 고정자산 형성을 위해 수입된 화물, 설비 및 기계에 대한 면세 등
 - 국내에서 생산 불가능한 원자재, 소모품, 부품에 대하여 5년간 면세 등

외국인 투자현황

> 외국인 투자

외국인투자금액에 있어서 빈즈엉성은 호치민시와 하노이시에 이어 베트남에서 세 번째로 많은 지역임. 2024년 3월말까지 빈즈엉성 내 총 외국인투자는 4,266개의 프로젝트에 걸쳐 406억 달러가 투자등록 되어있음

> 한국 투자

2024년 3월말까지 빈즈엉성 내 한국투자는 775개의 프로젝트에 걸쳐 33.4억 달러가 투자등록 되어 있으며, 빈즈엉성에 투자한 국가(65개) 중 5위 규모임.

> 빈즈엉성 내 10대 한국 투자 프로젝트

No.	프로젝트명	내용	투자금액 (USD달러)
1	Kolon Industries Binh Duong Co., Ltd	제조 및 가공 산업(폴리에스터 타이어 생산)	220,000,000
2	Orion Food Vina Co., Ltd	제조 및 가공 산업(여러 종류의 제과)	101,500,000
3	DCT Partners Co., Ltd	부동산 사업(고층 아파트, 쇼핑몰)	100,000,000
4	Phu My Development Co., Ltd	건설(리조트, 골프장)	81,166,000
5	Fotai Vietnam Co., Ltd	제조 및 가공 산업(표장)	62,288,000
6	Lotte Vietnam Shopping JSC(Binh Duong)	도매 및 소매; 자동차, 오토바이 수리	60,000,000
7	Dongil Rubber Belt Vietnam Co., Ltd	제조 및 가공 산업	47,000,000
8	Panko Vina Co., Ltd	제조 및 가공 산업	41,819,000
9	Waps Vietnam Co., Ltd	제조 및 가공 산업	40,000,000
10	Cao Dai Ha Industry Co., Ltd	제조 및 가공 산업(의류 산업용 염료 생산)	40,000,000

> 공단 현황

○ 공단 개발을 통한 산업 개발 동력

- 현재까지 빈즈엉성에는 815ha의 12개 산업 클러스터 및 12,663ha 면적에 걸쳐 29개의 공단이 있으며, 그 중 26개의 공단이 운영되고 있음
- 빈즈엉성은 첨단 산업 단지, 무역-서비스 지역, 신규 도시 지역을 포함하여 총 면적이 4,196ha가 넘는 산업-도시-서비스 단지를 계획, 건설 및 개발하고 있으며, 그 중 1,000ha가 빈즈엉 신도시를 건설되고 개발되고 있음.

- 빈즈엉성의 산업단지는 모두 통합적이고 현대적인 기술 인프라에 투자되어 투자 유치에 유리함. 산업단지들에서의 평균 토지 임대율은 67%에 달했음

빈즈엉성의 공단 지도



○ 주요 공단 정보

No.	공단명	설립년도	면적(ha)	투자자/개발사
1	바우방(Bau Bang)	2007	1,000	Becamex IDC Corp http://becamex.com.vn
2	미프억(My Phuoc)	2006	1,700	Becamex IDC Corp http://becamex.com.vn
3	푸자(Phu Gia)	2007	133	HCMC General Import Export and Investment JSC http://www.imexco.vn
4	비엠희엉(Viet Huong) II	2003	250	Viet Huong Group http://viethuongip.com
5	탄동히엵(Tan Dong Hiep) B	2002	164	Phu My Company Limited
6	송턴(Song Than) III	2005	533	Dai Nam Joint Stock Corporation
7	동안(Dong An) II	2006	152	Hung Thinh Trading Manufacture Construction JSC http://dongan-group.com.vn
8	다이당(Dai Dang)	2005	274	Da Deng Construction and Investment Co.,Ltd http://daden.com.vn

*빈즈엉성의 토지 임대료는 토지사용기간에 따라 US\$40~120/m² 차이가 있음

- 빈즈엉성의 산업단지는 모두 통합적이고 현대적인 기술 인프라에 투자되어 투자 유치에 유리함. 산업단지들에서의 평균 토지 임대율은 67%에 달했음

투자 유망분야

빈즈엉성은 다음 산업 및 분야에 대한 투자 유치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 ✓ 하이테크, 친환경, 낮은 노동집약도, 고부가가치 산업
- ✓ 금융 서비스, 물류산업
- ✓ 제조 지원산업, 첨단 농업
- ✓ 특히 선진국의 인터스트리 4.0을 기반으로 하는 과학기술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유치를 희망함

투자유치기관 정보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이메일
빈즈엉성 산업무역청	Mr. Nguyen Truong Thi (부청장)	Tel: +84-2743-822-563 Email: soct@binhduong.gov.vn Website: socongthuong.binhduong.gov.vn
빈즈엉성 공단관리위원회	Mr. Bui Minh Tri (위원장)	Tel: +84-2743-831-215 Email: bqlkcn@binhduong.gov.vn Website: kcn.binhduong.gov.vn
빈즈엉성 투자진흥 및 비즈니스지원 센터(빈즈엉성 투자기획청 산하)	Mr. Tran Phong Luu(부센터장)	Tel: +84-2743-885-168 Website: https://hotrodoanhnghiep.binhduong.gov.vn

베트남 진출기업을 위한 AEO 제도 활용 가이드

제1장 2024 세계 경제·교역 전망

제1장 AEO 제도의 의의와 AEO MRA

제1절 AEO 제도의 개관

제2절 한국의 AEO 제도

제3절 AEO MRA의 필요성

제2장 베트남 AEO 제도

제1절 베트남 AEO 제도의 개관

제2절 베트남 AEO 제도의 공인 혜택

제3절 베트남 AEO 제도의 공인 조건

제4절 베트남 AEO 공인 절차

제3장 실무자가 말하는 베트남 AEO

부록1 AEO 제도의 세부 이행을 위한 규정(번역)

부록2 베트남 AEO 공인 신청을 위한 질의서

[KOTRA 해외시장뉴스>보고서에서 확인가능, 클릭시 해당 게시글로 이동합니다.](#)

對베트남 국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구분 국가명	1988. 1. 1~2024. 3. 20 기준 누계		2024. 1. 1 ~ 3. 20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한국	9,931	86,899.14	83	248.59	439.31
싱가포르	3,597	77,241.91	99	2,283.98	2,551.08
일본	5,304	74,379.10	43	456.35	520.22
대만	3,149	39,519.74	43	107.73	193.3
홍콩	2,524	35,215.93	64	833.04	1,053.30
중국	4,418	27,639.82	179	481.27	552.43
버진아일랜드(영)	914	22,898.04	2	3.58	60.45
네덜란드	434	14,400.66	2	0.61	36.13
태국	738	14,061.44	6	30.54	53.09
말레이시아	738	13,109.38	11	4.07	5.01
미국	1,355	11,834.31	23	5.79	17.26
기타	6,656	58,630.09	51	318.45	693.19
전체 합계	39,758	475,829.53	644	4,774.01	6,174.77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對베트남 산업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연번	구분 산업	2024. 3. 20 기준 누계		2024. 1. 1 ~ 3. 20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1	제조, 가공	17,126	287,480.98	243	3,042.97	3,926.52
2	부동산 경영	1,155	70,062.98	18	1,491.74	1,583.26
3	전력, 가스, 용수 제조 공급	194	40,653.40	-	-	1.48
4	호텔, 외식서비스	993	14,353.69	9	0.82	14.46
5	건설	7,219	11,204.44	216	150.97	224.84
6	도소매, 유지보수	1,821	10,924.64	9	4.3	42.01
7	물류운수	1,111	6,168.67	15	12.19	17.28
8	과학기술, 전문활동	4,549	5,472.58	63	24.78	190.16
9	정보통신	2,970	5,122.74	38	4.68	30.4
10	채광	107	4,892.57	-	-	-
11	교육, 양성	694	4,633.60	11	16.21	16.42
12	농, 임, 수산	536	3,915.55	2	11.74	46.39
13	예술 오락	146	3,231.41	2	1.58	1.58
14	용수 공급, 폐기물 처리	87	3,159.48	1	0.02	3.77
15	의료와 사회복지	158	1,764.50	-	-	0.65
16	행정, 지원 서비스	633	1,076.70	14	10.03	40.18
17	금융, 은행, 보험	100	931	3	1.99	32.82
18	기타 서비스	152	769.51	-	-	-
19	가구내 고용활동	7	11.07	-	-	-
	합계	39,758	475,829.53	644	4,774.01	6,174.77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단위 : US\$억, 증감율%)

구분	2021	2022	2023	2024.3
수출	3,363.10	3,713.00	3,546	928(+17.1)
수입	3,322.30	3,589.00	3,263	850(+14.2)
무역수지	40.80	124.00	280.00	78.00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품목명	2021	2022	2023	2024.3
각종 전화기 및 부품	57,537	57,994	52,379	14,215(+5.19)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	50,828	55,536	57,336	16,334(+35.7)
기계/플랜트 및 부품	38,344	45,751	43,128	10,935(+10.8)
섬유/직물제품	32,753	37,566	33,329	7,820(+12.2)
신발류	17,751	23,895	20,237	4,791(+10.4)
원목 및 목제품	14,809	16,011	13,467	3,539(+25.4)
철강제품	11,795	7,993	3,973	1,054(+2.8)
수송수단 및 부품	10,616	11,988	14,157	3,664(+16.1)
수산물	8,886	10,923	8,971	1,945(+6.5)
원사(Yarn)	5,612	4,713	4,355	1,055(+12.2)
기타	87,379	98,934	103,339	27,528.00
합계	336,310	371,304	354,671	92,880.00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품목명	2021	2022	2023	2024.3
전자제품 및 컴퓨터	75,440	81,884	87,965	24,042(+24.1)
기계/플랜트 및 부품	46,296	45,192	41,579	10,344(+12.5)
각종 전화기 및 부품	21,434	21,126	8,749	2,290(+20.5)
의류(원단)	14,324	14,706	13,016	3,156(+5.8)
플라스틱 원료	11,685	12,387	9,755	2,503(+18.4)
각종 철강	11,523	11,920	10,425	2,928(+49.6)
기타 비금속	8,611	9,253	7,626	2,036(+19.5)
플라스틱 제품	7,959	8,119	7,508	1,910(+15.4)
화학제품	7,627	9,144	7,605	1,772(-0.2)
화학물질	7,735	8,747	7,726	1,936(+4.8)
기타	119,600	136,423	124,419	32,163.00
합계	332,234	358,901	326,373	85,080.00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20	2021	2022	2023	2024.3
1	미국	77,077	96,293	109,388	97,020	25,772.00
2	중국	48,905	56,009	57,702	61,207	13,108.00
3	한국	19,107	21,945	24,293	23,498	6,364.00
4	일본	19,284	20,128	24,232	23,314	5,689.00
5	홍콩	10,437	11,996	10,936	9,631	2,944.00
6	네덜란드	6,999	7,686	10,430	10,241	2,941.00
7	독일	6,644	7,286	8,968	7,400	1,902.00
8	인도	5,235	6,259	7,961	8,498	2,101.00
9	태국	4,917	6,161	7,476	7,192	1,981.00
10	영국	4,955	5,765	6,065	6,345	1,902.00
	기타	79,094	96,782	103,853	100,325	28,176.00
	합계	282,654	336,310	371,304	354,671	92,880.00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20	2021	2022	2023	2024.3
1	중국	84,187	109,874	117,866	110,644	30,523.00
2	한국	46,895	56,155	62,088	52,511	12,553.00
3	대만	16,701	20,772	22,631	18,421	4,907.00
4	일본	20,341	22,648	23,373	21,638	5,501.00
5	미국	13,713	15,270	14,470	13,822	3,384.00
6	태국	10,968	12,564	14,092	11,797	2,608.00
7	오스트레일리아	4,677	7,946	10,144	8,533	1,861.00
8	말레이시아	6,575	8,148	9,124	7,809	2,417.00
9	인도네시아	5,382	7,587	9,641	8,728	2,046.00
10	인도	4,435	6,950	7,086	5,864	1,398.00
	기타	48,826	64,320	68,386	66,606	17,882.00
	합계	262,700	332,234	358,901	326,373	85,080.00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한-베트남 교역동향

(단위 : US\$백만, 증감율%)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3
수출	48,510(+0.7)	56,729(+16.9)	60,972(+7.5)	53,479(-12.3)	13,260(+6.6)
수입	20,579(-2.3)	23,965(+16.5)	26,726(+11.5)	25,941(-2.9)	7,086(+4.5)
무역수지	27,931	32,763	34,246	27,550	6,174

자료원: KITA

한국의 베트남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품목명	2020	2021	2022	2023	2024.3
반도체	11,501(7.2)	14,026(22)	16,240(15.8)	12,729(-21.6)	3,952(+26.7)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9,552(19.9)	12,050(26.1)	12,527(4.0)	12,350(-1.4)	2,226(-4.5)
석유제품	1,196(-45.5)	1,157(-3.2)	3,733(222.3)	3,327(-10.8)	780(-11.9)
무선통신기기	3,460(18)	3,315(-4.2)	2,358(-29.2)	2,166(-8.1)	637(+18.6)
합성수지	1,615(-0.6)	2,415(49.5)	2,581(6.9)	2,001(-22.5)	556(+19.1)
기구 부품	2,241(0.5)	2,405(7.3)	2,194(-8.8)	1,861(-15.1)	424(-0.9)
플라스틱 제품	1,115(-7.8)	1,174(5.3)	1,067(-9.2)	1,021(-4.2)	246(+13.1)
철강판	1,052(-9.1)	1,267(20.4)	1,069(-15.6)	887(-17.0)	195(-2.3)
기타기계류	669(-14.5)	957(43.0)	793(-17.1)	801(+1.0)	181(-14.5)
계측제어분석기	686(-18.6)	717(4.5)	815(13.6)	734(-9.9)	131(-32.0)
기타	15,437	17,039	17,242	15,612	3,932
합계	48,511(0.7)	56,729(16.9)	60,972(7.5)	53,489(-12.3)	13,260(+6.6)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한국의 베트남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품목명	2020	2021	2022	2023	2024.3
무선통신기기	4,980(-12.5)	5,579(12)	5,986(7.3)	4,543(-24.1)	1,245(+3.6)
의류	3,145(-13.7)	3,393(7.9)	3,840(13.2)	3,542(-7.7)	933(-5.5)
컴퓨터	1,270(87.1)	1,659(30.6)	1,948(19.1)	2,075(+6.6)	820(+11.8)
반도체	561(18.9)	750(33.8)	787(5.0)	2,053(+160.9)	697(+100.2)
산업용 전기기기	574(20)	725(26.2)	970(33.8)	1,396(+44.0)	379(+22.3)
신변잡화	1,029(-2.2)	984(-4.4)	1,250(27.2)	1,252(+0.1)	301(-14.9)
목재류	632(-3.9)	755(19.5)	942(24.8)	722(-23.3)	160(-25.6)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1,027(-14.2)	876(-14.7)	783(-10.5)	657(-15.9)	99(-36.1)
기구부품	481(-5.9)	624(29.6)	654(4.8)	571(-12.7)	130(+4.7)
영상기기	391(11.8)	426(8.9)	441(3.6)	409(-7.2)	94(-5.3)
기타	6,474	8,161	9,103	8,718	2,228
합계	20,579(-2.3)	23,966(16.5)	26,726(11.5)	25,938(-2.9)	7,086(+4.5)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 한/베 통계 집계 기준이 달라, 수치가 다소 차이남

< 2022~2023년 주요 경제지표 >

구분	시기	단위	국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GDP증가율	2023년(연간)	%	5.1	5.1	1.1	3.8	1.9	5.6	
	2023년 3Q	%	5.3	4.9	1	3.3	1.4	6	
	2023년 4Q	%	6.7	5	2.2	3.4	1.7	5.6	
생산	산업생산 (증가율 또는 지수)	2023년(연간)	-	1.5	N/A	125.9	127.3	97.5	N/A
		2024년 1월	-	18.9	N/A	120.7	132.8	99.2	2.2
		2024년 2월	-	△6.8	N/A	110.4	124.4	99.3	2.6
	구매관리자지수 (PMI)	2023년(연간)	-	N/A	N/A	N/A	47.7	51.8	51.5
		2024년 1월	-	50.3	52.9	50.7	49	46.7	50.9
		2024년 2월	-	50.4	52.7	50.6	49.5	45.3	51
소비	소비자동향지수	2023년(연간)	-	N/A	N/A	113.6	N/A	N/A	N/A
		2024년 1월	-	N/A	123.1	114.6	N/A	N/A	N/A
		2024년 2월	-	N/A	123.1	115.4	N/A	N/A	N/A
	소매판매	2023년(연간)	-	9.6	N/A	N/A	N/A	N/A	4.5
		2024년 1월	-	8.1	1.1	N/A	N/A	N/A	2.5
		2024년 2월	-	8.5	N/A	N/A	N/A	N/A	2.1
	소비자물가 (증가율 또는 지수)	2023년(연간)	%	3.3	N/A	3.7	N/A	1.3	7.9
		2024년 1월	%	3.4	2.6	2.9	1.5	△1.1	2.8
		2024년 2월	%	4	2.8	3.4	1.8	△0.8	3.4
투자	고정자산투자	2023년(연간)	%	N/A	N/A	N/A	N/A	N/A	N/A
		2024년 1월	%	N/A	N/A	N/A	N/A	N/A	N/A
		2024년 2월	%	N/A	N/A	N/A	N/A	N/A	N/A
고용	실업률	2023년(연간)	%	2.3	N/A	1.9*	3.4	1	3.1
		2023년 3Q	%	2.3	5.3	2	3.3	1	3.1
		2023년 4Q	%	2.3	N/A	2	3.3	0.8	4.5
무역	수출증가율	2023년(연간)	%	△4.4	△11.3	△10.1	△8.0	△0.8	△3.4
		2024년 1월	%	42	△8.1	16.7	8.7	10	5.1
		2024년 2월	%	△5.0	△9.5	1.7	△0.8	3.6	1.7
	수입증가율	2023년(연간)	%	△8.9	△6.6	△13.4	△6.4	△3.2	4.1
		2024년 1월	%	33.3	0.4	11.1	18.7	2.6	△7.6
		2024년 2월	%	1.8	15.8	5.6	8.4	3.2	2.9

[자료원]

- (베트남) 베트남 통계청, 월드뱅크(싱가포르) 싱가포르 통계청(DOS), The Straits Times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CEIC, Moody's, Trading economics, 인도네시아 통계청, Global Trade Atlas 등
 - (싱가포르) 싱가포르 통계청(DOS), The Straits Times
 - (말레이시아) Central Bank of Malaysia, 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 MIER, S&P
 - (태국) 산업경제실(OIE), 태국중앙은행(BOT), 태국상공회의소대학교(UTCC), 태국상무부(MOC), 태국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C)
 - (필리핀) Trading Economics, YoY, Investing.com, IHS Markit, PSA, Moody's Analytics, Unemployment rate
- 전망치는 *표시



행사개요

안녕하십니까? KOTRA는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주호치민대한민국총영사관, 코참,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우리 진출기업들의 비즈니스 환경개선과 사업기회 발굴을 위한 MEET KOREA 2024를 5월 17일(금) 빈즈엉성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베트남 남부 핵심 경제지역인 빈즈엉성을 포함한 19개성·시의 고위급(당서기 혹은 성장급 등)인사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인 여러분들이 베트남 지방성·시와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정부에 애로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본 행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4년 5월 17일(금)
장소	Binh Duong Convention & Exhibition Center (BCEC)
참가규모	한국 유관기관 및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베트남 19개 성·시 고위급 인사 약 300명 > 참여지방성(잠정): 빈즈엉성, 호치민시, 바리아붕파우성, 떠이닌성, 빈푸옥성, 동나이성, 하우장성, 티엔장성, 롱안성, 동탑성, 빈롱성, 짜빈성, کن터시, 속짱성, 벤째성, 박리우성, 안장성, 키엔장성, 까마우성

프로그램

08:30-09:15	한-베 전시부스 개막식
MEET KOREA 2024 컨퍼런스	
09:30-09:50	(개회사) 베 외교부 지도부, 빈즈엉성 지도자, 주베트남한국 대사
09:50-10:10	장학금 수여식 및 MOU 서명식
10:10-10:50	(세션1) 녹색 농업 개발협력
10:50-11:45	(세션2) 교역 및 투자협력
11:45-12:00	(폐회사) 베 외교부 지도부, 주호치민총영사
12:15-13:30	오찬
B2BG 네트워킹 간담회	
13:45-16:00	B2B, B2G 네트워킹 간담회



전시·홍보부스운영

- 베트남, 한국 기업 및 기관의 전시·홍보부스운영
 - 한국측, 베트남측 총 25여개 부스 예상
- 전시·홍보부스는 선착순 배정, 최대 10개 기업 및 기관 배정가능(부스 장치비 개별부담)
- 문의·신청: KOTRA (Tel) +84-24-3946-0511(531), (E-mail) soorin@kotra.or.kr

B2BG 네트워킹 간담회

- B2B 네트워킹: 한국-베트남 참가기업간 개별 미팅 추진
- B2G 네트워킹: 참가기업의 성·시별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지방성에 사전 전달하고, 행사 당일 해당 기업과 성·시별 책임자가 면담하여 애로 해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
 - 성·시별 투자 유치 희망 분야를 취합하여 업데이트 예정([바로가기](#))
- 개별 미팅 통역은 원칙적으로 참가기업에서 준비 필요

숙박/셔틀버스

- 숙박 안내(Promotion 적용 금액)
 - 호텔명 : Becamex new city (B2 Hung Vuong, Phu Chanh, Thu Dau Mot, Binh Duong)
 - 비용 : 디럭스룸 1인 기준 1,460,000동/1박 (조식 및 세금 포함), 1인 추가 시 추가요금 565,000동 발생
- 셔틀버스
 - 출발장소 및 시간은 추후 공지(호치민 시내 혹은 떠선년 국제공항 예상)

신청접수

[여기](#) (링크 포함)를 누르시면 신청 링크로 자동 연결됩니다.

- 문의처
 - KOTRA (Tel) +84-24-3946-0511(531), (E-mail) soorin@kotra.or.kr



「2024 한-베 파트너십 플러스 워크」 연계

한-베트남 스마트산업 비즈니스 상담회

2024. 7. 16. 화 / 호치민 뉴월드 사이공 호텔

KOTRA는 정상 베트남 순방(23.6월)의 후속으로, 양국 기업 간 비즈니스 협력 확대를 지원하고자 베트남 경제 중심지인 호치민에서 「2024 한-베 파트너십 플러스 워크(7.16~17)^{주)}」를 개최합니다.

주) 비즈니스 상담회, 포럼·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한 자리에서 개최되는 종합 경제협력 행사

관련하여, 스마트산업 분야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돕기 위한 "한-베 스마트산업 비즈니스 상담회" 참가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베 스마트산업 비즈니스 상담회 개요

일시/장소 '24.7.16.(화) 전일 / 호치민 뉴월드 사이공 호텔

규모 한국기업 70개사 내외, 베트남 바이어·발주처 150개사 내외

모집 분야	세부 분야
① 친환경·에너지	에너지 저장·관리, 수처리 및 대기 정화, 폐기물 처리,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 발전 관련 장비·기기·솔루션 등
② 의료·헬스케어	의료기기, 의료용 기구·소모품, 미용기기, 의약품, 개인용 헬스케어·미용기기·솔루션, 진단·진료 솔루션 등
③ 농업·스마트팜	스마트팜 솔루션 및 장비, 수직형 농장 솔루션 및 장비, 첨단 농기계 및 기구, 친환경 비료·농약, 기타 첨단 농업기술 등

참가비 **별도 참가비 없음**
*참가기업의 현지 출장에 따른 항공임과 숙박비 등의 출장비 및 체류비 일체는 기업이 비용 자체 부담

지원사항
- 베트남 잠재 바이어 발굴 및 1:1 비즈니스 상담 주선
- 비즈니스 상담 전문 통역원 배치
- 기존 파트너사·에이전트 및 관심 바이어 초청 지원(베트남 전역)
- MOU 및 계약 체결 지원 (체결식 공간 제공 및 진행 등)
- 현지 인솔 및 출입국 관련 정보 등 출장 문의 지원

신청방법 KOTRA 무역투자24(kotra.or.kr)에서 온라인 신청 (아래 QR코드 연결)

참가신청 기한 '24.5.10.(금) 18:00 까지

관련 문의 KOTRA 호치민무역관 장혜인 과장 jjang9@kotra.or.kr
KOTRA 경제협력지원팀 정예은 과장 yennyech@kotra.or.kr



사업신청 QR코드

kotra 베트남 비즈니스 NEWS



베트남 · 인도네시아 · 인도
비즈니스 협력센터

PARTNERSHIP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편집 및 제작 : 베트남비즈니스협력센터 / 협업 : 코트라하노이, 호치민, 다낭 무역관
☎ +84 24-3946-0511 ✉ soorin@kotra.or.kr < 저작권자 ©KOTRA >